

새로나온 책

‘스님아빠’ 지홍 스님 수필집



‘누가 밥상을 차려주랴’

지홍 스님 지음
국부카르마 / 1만원

승복입은 택시기사로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지홍 스님(보광 정사의 수필집 <누가 내 밥상을 차려주랴>가 나왔다. 현재 1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택시 기사는 물론 바라춤과 연사일까지도 마다않는 스님의 일상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또 공부하고 싶어 스님이 된 독특한 출가 사연을 비롯해 스님아빠로서 살아가는 어려움, 승복입은 택시기사로 겪은 에피소드, 수행자가 바라본 사회의 근상들이 붓가는 대로 펼쳐져 있다.

‘身·受·心·法’ 관찰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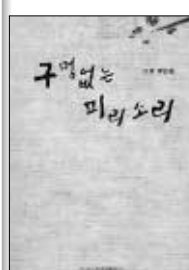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육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 9천원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인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는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에 대한 관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이다. 저자는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 이 책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마음을 챙기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느낌들에게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들에서 법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四念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만 스님 법문 詩語로 엮어



‘구멍없는 피리’

법만 스님 지음
이화문화 / 8천원

‘구멍없는 피리소리’저 고요가 시끄럽다지/한식경 저 나뭇잎 잠에서 깨어/소리없는 소리 들어보게/나뭇잎 사천 법문이 모두 한소리/등반 피리 속 바람소리로 남아/ 저 먼저 울다가 돌아간다네 (‘구멍없는 피리소리’ 중에서)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법만 스님(법만사 주지)의 선시집 <구멍없는 피리>는 스님의 평소 법문들을 정제된 시어로 엮은 책이다. ‘허공이 허공에게’, ‘주장자 치켜들고’, ‘공중무새’, ‘팔만대장경’ 등 60여편의 선시들이 담겨 있다.

‘팔방미인’ 초의선사 진면목 탐구



△한승원 씨

초의(1786~1866) 스님은 ‘호남 칠고봉’으로 추앙받던 뛰어난 선승.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한데다 법패, 탕화, 탕화, 단청, 바라춤에 이르기까지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했다. 당대 지식인들은 그와 교유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정신적 아버지’로 모셨던 단산 정약용을 비롯해 단산의 아들인 학연과 학우, 추사 김정희, 해거도인 흥현주, 자하 신의 등과 가까웠다. 하지만 초의 스님은 누가 뭐래도 차(茶) 문화를 보급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나라 모 문환이 엮은 <다경요재>에서 ‘차 제대로 마시는 법’을 초록해 <다산전>을 저술했고, 52세 때 흥현주의 부탁을 받고 <동다송>을 펴냈다. 중진 작가 한승원씨(64)는 소설 <초의>에서 입적 앞둔 스님의 현재와 어린 시절을 오가며 초의 선사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다. 역병으로 가족을 잃고 운흥사로 가려는 초립동 초의를 나뭇배에 태워준 아낙이 풍전 두

‘초의’

한승원 지음
김영사 / 9천5백원

눈을 주면서 “면 훗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오”라고 한 말은 그에게 일생 일대의 큰 화두가 된다.

초의 스님은 특히 속세의 유희자와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유하면서 천개의 눈과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다. 아나에게 받은 동전 두 닢을 세속 사람들에게 돌려주려 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초의 스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일화와 허구를 대담하게 직조하여



매(茶禪三昧)로 깨달음을 이룬 선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단산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초의는 단산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초의가 26세 되던 해에 대둔사 천불전 상량문을 단산과 그 무렵 중진 스님들을 제치고 쓴 사실에서 작가는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4세에 단산과 첫 대면한 그가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단산의 가르침을 받아

시·글씨·그림·단청·법패 등 다재다능

茶문화 보급 주력...다경요재 등 많은 저술

영화처럼 속도감 있게 작품 속으로 풍덩 빠지게 한다. 깨달은 마음을 암자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차와 선을 통하여 저자거리 회향하려 했고, 어떤 때는 법패를 부르고 바라춤을 추면서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다독이며 거친 세상의 다리를 훌쩍 건넌 수행자가 바로 초의 선사였다. 작가는 초의의 매력을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초의 스님을 알고 난 지금, 나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향기롭고 넓어 보이고, 세상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작가는 절 집안의 일부 오해처럼 초의를 경학에 능통했던 강백오로만 보지 않고 단산삼

천불전 상량문을 의뢰받을 만큼 자라가 공인하는 선승으로 성장했겠느냐는 것이다.

작가는 초의 스님을 연모해 출가한 비구니를 등장시켜 소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해남 대흥사 일지암과 강진의 단산초당을 수없이 오갔으며, 단산 시문집과 추사의 문집, 자하 신의의 글 등 초의 스님과 교유했던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해 그의 행적을 좇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의 스님의 유년 시절과 출가 직후 행차와 사미로서 행적, 지식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당대의 치열했던 정신사를 복원해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처님행적 좇아 4대 성지순례

‘인도기행’

법정 지음 / 김홍희 사진
샘터 / 1만2천원



1989년 11월부터 3개월간 법정 스님이 인도에서 체험한 설산(雪山)의 신비와 성스러운 울림이 오롯이 깃들여 있다. 스님은 시종일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인도를 안내한다. 이번에 출간된 ‘인도기행’은 개정판이다. 글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진 작가 김홍희씨가 담아낸 2003년의 인도가 과거의 인도와 만났다. 이번 책을 위해 김홍희씨는 3월 한달내내 인도에 직접 가서 3천여 컷의 셔터를 눌러댔다. 깊고 그윽한 사진은 스님의 글과 잘 어울려 진다.

스님은 싯다르타의 행적을 좇아 인도의 4대 성지 룸비니와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를 찾는다. 또 불교 포교의 중심지였던 왕사성, 최초의 불교 사원 죽림정사, 인도 문화의 해의전과 분겨지 나란다 대학 등에도 발을 디딘다. 여정에서 음미하는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에

의 반성과 성찰이 가슴깊이 다가온다. ‘도심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초록이 눈부신 숲에 오니 마치 물 만난 고기가 된 듯 싶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과 종교가 대자연의 숲 속에서 잉태된 그 비밀을 넘어다볼 수 있었다.

김주일 기자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

법장 스님 지음
바보새 / 1만원

삶·깨달음

감성적 문체로 그려



해인사 도서관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화순 시지암)이 펴낸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에는 중생들과의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행자의 체취가 흠뻑 배인 글들이 즐비하다. ‘법장 스님의 글은 단순한 문자향을 넘어서 아련한 그리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때론 탄탄한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다’는 현승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의 추천사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 ‘인연이야기’, ‘산사에서’, ‘운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사람이...’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사계절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2장 ‘인연...’에서는 신심이 굳은 보살을 비롯해 자신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처사 등 스님이 만난 인연들을 소개했다. 또 3장 ‘산사에서’를 읽으면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잠삼 손질에 얽힌 실수, 면도기로 하는 삭발행사 등 수행자들이 산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스님 특유의 감성적 문체로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4부 ‘운수행자로...’에서는 가족과의 인연을, 5부 ‘세상과...’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해 들려준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호스님	시공사
2	소리없는 소리	법정 지음	샘터
3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 나무
4	화	탁 닷 한 명	진
5	유식30송	서광스님	불광
6	할	한암대종사	휴먼북스
7	아비달마불교	권오민	민족사
8	기도	원타스님	효림
9	물은 담을 알고 있다	에모투 마스투	나무심는사람
10	불자의 가족사랑	김형준	효림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아문 전화: (02) 737-0695

고요이침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c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온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는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법회 선사가 있었다. 법회는 저 유명한 미조 도일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미조가 대답했다.
“이리 잘치코 오나라.” 법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지마자 미조가 한 주먹 휘어박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끼기 여섯이 있어서 온근한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나라.”

-미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素空慈 지음 | 각권 값 8,500원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素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비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무심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뭇민심, 북을 잔안도 한 잔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이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행이요 시이다. -종암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법부서 편집 | 김호준 편집

마음꽃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 온 보살 사람들이 마음다스리고 스스로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편집자 리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7,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이룬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담겨 있어 한국 근대 불교사의 줄판이다. -종암일보 경허, 만해, 경봉, 효봉 스님 지음 | 값 9,000원